

##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학용 의원실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관련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실에서 발간한 자료집에서 인용한 부분을 참고문헌에는 명시했으나 인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며, 이번에 뉴스타파의 질의를 보고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자료집은 독창적인 정책이나 연구를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내용이 아니라 정부, 학계, 관계기관의 견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국회 내 다른 의원실과의 정책 협의를 위해 발간한 문건과 자료로 소량 인쇄 배포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건과 제안 자료에 대해서까지 논문 수준으로 인용표기를 하는 것은 의원실의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정책은 그 특성상 정부, 기관, 학계의 연구나 성과 등을 반영하고 취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본 자료집에 대해서도 참고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였으며, 의원실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협의를 위해 작성된 문건과 자료에 대해서까지 저작권과 표절의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는 '제대로 된 글쓰기 윤리'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이제까지의 활동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며,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